경악 분노할 미래의 내 모습 피하기

(사사기 19:1~30)

22.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23. 집 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24.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25.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26.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밝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27.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28.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29.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열두 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30.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경악 분노할 미래의 내 모습 피하기>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경악 분노할 미래의 내 모습 피하기'

얼마 전에 집 사람이 소파에 앉아서 손거울을 위로 두고 하늘 쪽으로 보다가, 정면으로 보다가, 일어서서는 고개를 숙이고 아래로 보고 있어서,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몸신"이라는 TV프로그램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다고 합니다. 거울을 들고 하늘을 향해 고개를 치켜

들어서 보이는 모습이 10년 전의 내 모습이고, 거울을 땅 쪽으로 놓고 고개를 숙여서 보이는 모습은 10년 뒤의 모습이랍니다. 저도 그렇게 해봤더니 정말로 젊어 보이거나 나이 들어 보이거나 했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거울을 깨버리고 싶다'는 여성분을 본 적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성분들이 평생 얼굴에 들이는 돈과 시간과 노력이 엄청납니다. 화장품, 자외선 차단제, 경락 마사지, 무슨 팩, 보톡스 등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늙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좀 더 고상한 차원에서의 노력을 하는데 '5년 뒤의 당신은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책과 당신 주변의 사람들에게 달려있다'라고 합니다.
미래의 나를 지금 보면 만족하고 기뻐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 거꾸로 물어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모습까지 합쳐서, 우리가 아직 때 묻지 않았던 18살 미만이었을 때에 40, 50, 60살이 된 지금의 자기의 모습을 보았다면 좋아하고 반가워했을까요? 오히려 싫어하거나 끔찍하게 여기진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미래의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두 가지 형태로 말씀하십니다. 빌3:18~19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들의 마침'이란 미래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는 것은 땅의 일을 생각해서 많이 얻었고 영광스러워졌고 자랑했다는 것인데, 나중에 내가 나를 볼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부끄러움으로 돌아온다는 것이고, 내가 나를 볼 때에 내가 살아온 나의 모습을 도저히 봐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변하게 됩니다. 빌3: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라고 하는데 '우리 미래의 모습이 주님의 영광의 모습처럼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의 영광을 보고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산 아래 일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산 아래에서 갖고 싶었던 것도 많고 하고 싶었던 것도 많았지만, 다 잊어버리고 지금 여기서 이대로 살자고 할 정도인데, 내 모습이 그렇게 반할만한 예수님의 모습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의 두 모습 중에서 내가 살아온 모습이 내 원수가 되어서 나를 괴롭히는 것이 바로 지옥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타오르는 지옥의 불은 내가 나에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렇게 방어하고 지키고 보존하려고 했던 내가 지옥에서는 원수가 되어서 나에 대해 분노하는 불길이 끊이지 않는 것이고, 반면에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을 이루고 싶어 했던 소원까지도 다 망각할 정도의 매혹적인 주님의 모습처럼 바뀔 수도 있는데, 이것을 나누는 기준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냐 십자가를 생활화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마음의 첫 번째 사랑의 자리에 들어오는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을 가질 때에 우리는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추구하게 됩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한다.'는 것은 그 이름을 마음이 붙잡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는 입니다. 반대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이면서도 이 땅에 있는 것들의 이름이 마음에 달라붙어서 그것을 붙잡고 그것이 가리키는 존재를 추구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전제하에 오늘 본문을 봅니다. 지금까지 사사기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상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충분히 들었는데, 굳이 이렇게 끔찍하고 잔혹하고 민망한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사기도 성경인데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신당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는 레위인과, 에브라임 산지의 구석에 살고 있던 또 다른 레위인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 말고 팔레스타인 전체에 퍼져서 살고 있었던 선민들 중에 쓸 얘기가 없어서 이렇게 끔찍하고 천인공노할 이야기가 기록됐어야 합니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고 있던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다고 합니다. 애초에 레위인이 첩을 두는 것도 희한한 일인데, 그 첩이 행음을 했다고 합니다. '행음'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남편에게 대항해서 행음을 했다'는 뜻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성적인 행음보다는 남편과 마음이 안 맞아서 싸우고 이탈했다'는 뜻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친정에 가 있던 첩을 데리고 오던 중에 밤이 깊어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성에 들어가게 되고, 어떤 노인의 친절을 받아서 머물려고 할 때에 그 성의 비류들 즉 양아치들이 와서 그 레위인을 끌어내라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에 롯의 집에 들어간 천사들을 끌어내서 동성애적인 성폭행을 하려고 했던 것과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부하다가 안 되니 레위인의 첩을 내주는데 이것도 이상한 것은 나가서 싸우다 죽더라도 첩을 내줘야겠습니까? 그 결과 밤새 성폭행을 당한 첩이 죽게 되자 이 레위인이 시체를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가서 칼로 첩의 시신을 열두 토막을 내어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보내는데 엽기도 이런 엽기가 없습니다. 그것을 받은 열두 지파가 경악하게 됩니다. 이 경악을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들이 자신들의 내부의 모습을 보고 경악하고 분노하는 것이고 이것이 본문의 핵심인데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이 내용이 미가와 단 지파의 이야기 뒤에 나오면서 사사기의 결론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더 앞선 일로 사사시대의 초기에 있었던 일인데 이 이야기를 결론부로 끌어온 것인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자신들 내부의 모습을 보고 분노하고 경악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한 나그네를 겁탈하려했다가 그의 아내를 집단 성폭행해서 죽이는 일을 일상처럼 행하는 베냐민의 기브아 비류들과 이를 묵인하는 성읍의 분위기가 말해주는 것은 한

마디로 말하면 선구자입니다. '선구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선민 전체가 가고 있는 죄악과 패역의 길을 가장 앞서서 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기브아의 양아치들이 앞서서 가는 동일한 길을 이스라엘이 가면서, 자기들이 걷고 있는 미래의 지점에 가있는 선구자를 보면서 너무나 끔찍해하고 경악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도 지금 걷고 있는 길을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걷는 한 반드시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길을 앞서가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모순되게도 그들을 뒤따라가던 자들이 경악하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길을 계속해서 걸을 때에 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놀라고 격분하는 모습이 나타나리라는 것인데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나 자신조차도 격분할 죄악 된 내 모습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내가 기브아의 양아치들과 같은 나의 미래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서 미가와 단 지파는 이스라엘 선민의 영적인 상황을 대표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선민으로서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둔 것이 미가는 돈이었고 단 지파는 땅과 번영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랑하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며 하나님을 우상시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마음으로는 다른 것을 좋아하며 결국 나타날 나의 모습을 기브아의 비류들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고 오늘 베냐민의 기브아에서도 그렇듯이 타락과 죄악의 극치에서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재미있는 점은 요즘 동성애에 대해 비판을 해도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동성애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생각이 고루하고 진화가 덜 된 인간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캐나다의 연합장로교회가 동성애 부부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동성애 목사를 단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극심한 반대가 있었지만 동성애를 연구하다보니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 동성애를 반대할 때의 모습과 지금의 동성애를 찬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돌로 쳐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로 쳐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극악무도한 모습으로 변해온 것을 절대로 용납 못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반대의 사람으로 변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좋아하고 사랑하는 대상으로 하나님 이외의 땅에 있는 것들을 붙잡으면 누구나 다 기브아 양아치가 도달했던 그 길을 가게 되고, 반드시 내가 경악하고 분노할 그 모습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브아의 양아치들처럼 동성애에 빠지거나 집단성폭행의 가해자가 되어서 한 여자를 죽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우리는 절대 그렇게까지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좋아요. 인정합시다. 그러면 기브아의 양아치들의 천인공노할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와 나를 지키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도덕관, 윤리, 풍습, 교양, 체

면, 법을 어겼을 때 주어질 결과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함과 행하지 않음의 이유는 하나님 사랑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미군부대에서 알고 있었던 한국계미군이 외출해도 클럽을 이용하지 않고 아가씨들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다른 미군들은 다 하는데 너는 왜 안하느냐고 물었더니 성병에 걸릴 위험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성병에 걸릴까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여자나 한 남자와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외도 했을 때에 나타나는 사회적인 파장 때문이고 내가 세상에서 쌓아온 것들이 무너지기 때문이고 내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에 가정을 사랑하는 책임감 있는 남편과 아내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실까 하나님을 사랑한 적은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사사기의 기브아의 비류와 같은 모습을 지니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과 같은 행동을 하지는 않을지라도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유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붙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미가나 단 지파의 모습이 기브아의 비류와 같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가정과 미래와 사회적 성공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절제하고 자제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바리새인들이 철두철미하게 율법과 도덕과 윤리를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23:27절에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하시고 마12:34절에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라고 저주를 퍼부으십니다. 바리새인들을 기브아 비류와 비교해보면 아무런 비난받을 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노하시면서 저주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그들이 유대사회에서 누리던 특권과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 특권을 유지하고 돈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던 것인데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우리는 기브아 비류들의 이야기를 듣고 민망해하고 분노합니다. 그들에게 첩을 내어주고 죽은 시체를 열두 토막을 낸 것도 엽기적이고, 도저히 성경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을 만큼 역겹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보다 자식, 남편, 아내를 먼저 사랑하고 심지어는 나라를 먼저 사랑할 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그런 역겨움을 가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깨끗하고 율법을 다 지킨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으로 그 속에는 썩은 시체를 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붙든 것은 유대 사회의 특권과 돈이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더러운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붙들고 사는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나 혼자 성폭행을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공동체적으로 성폭행에 가담하고 그 현장을 일상시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돈을 좋아하는데 교회까지 돈을 좋아해서 예산이 많아야 성공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산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교회조차도 그렇게 돈 돈 하는지 모르겠는데 무서운 일입니다.
기브아의 양아치들이 한 나그네의 첩을 성폭행해서 죽이고 레위인은 그 첩을 토막 내어 뿌리는 엽기적인 행동에 대해 가지는 역겨움을, 돈 좋아하는 교회들과 이 세상 것을 좋아하는 선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느끼시고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만으로 기쁘고 만족하리라는 순교의 마음을 결정해야 합니다. 다른 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십자가를 붙잡고 죽는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스꺼움과 역겨움을 완전히 제거하는 삶을 사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그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 감사에 감사를 더할 뿐입니다.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영원한 지옥에서 내가 나를 원수 삼아 분노에 들끓어 몸부림치며 영원을 살아야 했을 사람들인데, 주님의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해서 보좌 앞에 살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특권과 은혜 안에서 오늘도 순간순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